

인력 감축하고 ‘알바’로 대체하려는 대학 당국에 맞선 청소·경비 노동자 투쟁 지지한다!

2018년 새해 벽두부터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연세대, 홍익대, 고려대, 인덕대, 덕성여대, 숙명여대 등의 대학 당국들이 ‘비용 부담’을 이유로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인력을 줄이거나 정년퇴임자의 빈자리를 신규 채용하지 않고 단기 알바로 전환하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홍익대는 계약 만료된 노동자 4명을 고용승계 하지 않고 해고했다.

이런 공격들은 2018년 최저임금(7530원) 인상과 지난해 서경지부 노동자들이 수개월 간 투쟁 끝에 따낸 임금 인상 효과(시급 830원 인상)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와 관련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지난해 임금협약에 따라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총액이 당연히 늘어야 함에도, 대학들은 총액은 그대로 둔 채 인원을 줄이거나 퇴임자의 빈자리에 더 열악한 단기 알바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맞추려고 한다.

지금 여러 사업주들이 인원을 감축하고 노동 강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는 공격을 하고 있다. 대학 당국들도 마찬가지로 일을 하는 것이다. 사실 문재인 정부가 상여금, 식비 등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하려는 등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에 나선 것이 개별 사용자들과 대학당국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대학들은 최근 몇 년 동안 조직을 확대하고 임금과 노동조건을 개선해 온 청소·경비 노동조합을 약화시키려고 호시탐탐 노려 왔



다. 그 공격 중 하나가 정년퇴임 자리에 단기 알바 등을 채용하는 방식이다. 기존 업체에서 잘 조직된 노동조합을 우회해 저비용으로 입맛에 맞게 쓰고 버릴 수 있는 저질의 비정규직 일자리를 야금야금 늘리려는 것이다.

대학 당국은 ‘노동자들의 임금이 많이 오르고 등록금은 동결돼 재정적 여력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현재 인력 감축 시도가 벌어지는 대학들의 적립금은 수천, 수백억 원에 달한다. ‘현금 부자’라고 불리는 홍익대의 적립금은 7430억 원 규모로 전국 사립대 중 1위다.(2017년 기준)

청소노동자들을 비롯해 고령의 노동자들이 새벽 4~5시부터 일하는 것은 그만큼 청소할 구역이 넓고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이다. 한

노동자의 말마따나 “몸이 안 아플 때가 없”는 이유다. 그런데도 단기 알바를 투입해 하루 종일 하던 일을 단 3시간 만에 끝낸다는 것은 엄청난 노동강도를 수반할 뿐 아니라, 알바가 투입된 구역의 청결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경비 인원이 줄어들면 그만큼 학생들의 안전에 구멍이 생길 것이다.

저항

이 상황을 저지하기 위해 대학 청소·경비노동자들은 투쟁에 들어갔다. 몇몇 대학에서 시간제 ‘알바’를 막기 위해 노동자들이 건물 앞 피켓팅을 진행하는 동안 알바를 투입하려는 학교 당국과 용역업체가 충돌을 유도하기도 했다. 지난 목요일, 고려대에서는 고령의 노동자들을 상대로 “학생 없으니까 사진 찍어”

라며 용역업체 본사 직원들이 건물을 막아 선 노동자들을 협박하기도 하고 열댓 명이 우르르 노동자들을 밀어내기도 했다. 연세대에서는 대학 당국이 직접 ‘알바’ 노동자들을 데리고 다니며 건물 투입을 시도해, 학교 당국이 이 상황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줬다.

몇몇 대학에서 학생들은 이 상황을 묵과하지 않고 노학연대를 건설하고 있다. 고려대 학생들은 용역업체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온갖 협박을 벌인 데 분노해 알바 투입 저지 피켓팅에 연대를 강화했다. 용역업체는 노동자와 학생들이 단호하게 막아서자 함부로 건물에 들어올 수 없었다. 연세대와 홍익대 등에서도 연대를 구축하며 노동자들의 투쟁에 힘을 더하고 있다.

▶ 뒷면으로 이어짐

▶ 앞면에서 이어짐

2017년 두 차례 단호한 본관 접거 투쟁을 이끈 경험이 있는 이화여대 노동자들은 1월 2일 첫날 바로 승리를 거머 쥐었다. 학교 당국은 경비 노동자들을 해고하지 않겠다고 바로 약속서를 썼다.

이화여대 노동자들이 승리했지만 다른 대학 당국들은 쉬이 물러날 것 같지 않다. 지금 여러 사업체에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시키려는 공격이 진행되고 있다. 비슷한 공격을 하려는 기업들과 공격을 당하고 있는 노동자들도 이 투쟁을 지켜보고 있을 것인 만큼 이 투쟁은 사회적으로도 중요하다.

우리는 이 투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연대를 폭넓게 구축해야 한다.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이 개선되는 것이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도 이롭다. 대학 당국은 적립금을 활용해 등록금을 인하하고 대학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건을 개선하는 데 써야 한다.

고려대의 한 청소노동자는 “더 열악한 일자리가 도입되면 노동 강도가 높아지는 건 물론이고, 전체 일자리로 확대될 거다. 아예 도입되기 전부터 막아야 한다”며 “연대와 지지를 보내 달라”고 호소했다. 이 노동자의 말처럼 노동자들의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2018년 1월 5일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시도 중단하라

2018년 최저임금(7530원) 인상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최저임금위원회 제도 개선 전문가 태스크 포스(이하 전문가 TF)는 “현행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최종 보고서를 내놨다.

핵심 내용은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처럼 그동안 별도로 받던 항목들이 산입 범위에 포함되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는 적거나 거의 없을 것이다. 업종별·연령별로 차등 적용하려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제시해 온 방향과도 다르지 않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어수봉은 이미 10월 말에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의사를 밝혔다.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장관 등도 유사한 입장을 밝혀왔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들이 학교 비정규직의 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 시간을 줄여(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한 것도 이런 문제를 잘 보여 준다.

정부가 최저임금 무력화를 추진하는 분위기 속에서 개별 사용자들의 꼼수와 공격도 난무하고 있다. 곳곳에서 근무시간을 줄이고, 상여



금·식비 등을 시급에 포함시키는 꼼수들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신세계그룹이 주 35시간 노동시간 단축의 외피를 쓰고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에 나선 것이 대표적이다. 이마트 노동자들은 시급은 오르지만 월급 총액은 줄어든다. 게다가 줄어든 노동시간만큼 인력을 충원하지 않아 노동 강도도 대폭 강화했다. 이 때문에 이마트 노동자들은 자발적인 팻말 시위를 벌이고 항의 행동을 하는 등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대학들이 청소·경비 인원을 줄이고 ‘알바’로 대체하는 것도 이런 흐름과 맞닿아 있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무력화되면 불평등과 소득 격차를 해

소하기는커녕 저임금이 고착화될 것이다. 이에 맞서는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연대

구입하고 정기구독·후원해 주세요

대표전화 02-777-2792 | 기사제보 02-777-2791
팩스 02-6499-2791 | 이메일 ws@wspaper.org

wspaper.org

<노동자 연대>를 함께 읽고 토론합시다!

<노동자 연대>는 반전·평화, 노동자 투쟁, 여성·소수자 억압 등 이 사회의 문제들을 분석하며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함께 <노동자 연대>를 읽고 토론할 분들을 기다립니다. 연락 주십시오.

문의 : 010-5443-2395 (문자도 환영)

이렇게 함께 합시다!

청소 경비 인력 감축, 알바 전환에 맞선 대학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 지지 청년학생 연서명에 참가해 주세요.

bit.ly/청소경비투쟁지지

대학별 연대 일정

- 고려대
- 매일 오전 10시 민주광장 집회
 - 9일(화) 오전 10:30 고려대 정문 앞 '고려대 청소/주차/경비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학생대책위원회 주최 학생 연대 기자회견'
 - 문의: 010-7113-3328

연세대

- 매일 오전 11:30~12:30 학생회관 앞 선전전
- 문의: 010-9934-7315

홍익대

- 1월 12일(금) 오후 1시 30분 문헌관 앞 노동자-학생 공동 집중집회
- 1월 8일~10일 오전 11~12시 문헌관 1층 로비 약식집회
- 문의: 010-2798-7438